

군과 연계한 학교 안보교육 강화방안

Military and Related Strengthening Security Education Programs in Schools

Sung Jin Ko*, Hyo Sun Park**

Joint Forces Military University, P.O.BOX 78-300, Jaun-ro, Yuseung-gu, Daejeon, Korea

Dvision of Military Studies, Cheongju University, 298-Daeseong-ro, Sangdang-gu, Cheongju, Korea

Abstract

When the country is in crisis, it is the duty of the military to ensure the safety of the country. Internally, it is important for soldiers to have consciousness based on solid national security form their school days as well as to strive for strengthen the military's combat power through the moral education. In the reality, however, the young people appear to have low levels of the security awareness due to advances in the field of school education and changing the security education to the unification education in a 6th curriculum. In this study, in order to improve the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capacity at the national level, it is starting from the ought of that it must strengthen school security education. Through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after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military strength and the security education, we considered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unification education at school. And the actual condition about the unification education at school was analyzed at the middle school in Gangwon Yanggu.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policy, it is necessary to enhance unification education at school, and converts the term from the unification education to the security education. Second, In terms of institutional aspect, it is required to set up strengthened measures of the governmental unification education at school, to develop the related laws and to establish the additional regulations. Third, the self-governing-body education

* Tel, +82-42-878-3511. E-mail. cptsj@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Tel. +82-43-229-7962. Fax. +82-43-229-7950 E-mail. phs6166@cju.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Apr. 15, 2014 / Revised: May. 18, 2014 / Accepted: Jun. 23, 2014

departments and the individual schools voluntarily must have the interest in the unification education at school. Fourt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hould adjust and control funds for unification education at school.

Key words: Psychological military strength,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unification education, security education, unification education at school, planning school education

국문초록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관리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것이 군의 임무라면, 내부적으로 장병 정신교육을 통해 군의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병들이 입대 전 학생시절부터 올바른 안보관과 국가관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은 학교 교육현장의 진보화와 제6차 교육과정에서 안보교육이 통일교육으로 바뀌면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안보교육의 약화로 인해 입대 장병들의 안보의식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학교현장에서 안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출발하였으며,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안보교육과 정신전력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규명한 후, 학교 안보교육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실제 학교현장에서 안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강원도 양구지역의 중학교의 학교교육계획을 집중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학교 안보교육의 강화 조치와 통일교육에서 안보교육으로 학교안보교육의 명칭환원,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범 정부차원의 학교안보교육 강화대책 수립 및 관련 법규의 정비와 추가 제정, 셋째, 교육자치제에 따라 교육청 및 개별학교 차원의 안보교육 강화조치, 넷째, 국방부 차원에서 학교안보교육 지원에 대한 조정-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등을 발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정신전력, 위기관리, 통일교육, 안보교육, 교육과정, 학교안보교육, 학교교육계획

1. 서론

지난해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군의 정신무장을 강조하고, 과거 김대중 정부당시에 해체되었던 정신교육 전담기구인 국방정신전력원을 재창설할 정도로 장병 정신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 박근혜 대통령이 군 정신교육을 강조한 것은 강한 정신력을 가진 군대만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도 대통령의 의지에 부합하기 위해 환골탈태(換骨奪胎)의 자세로 군인정신을 강화하고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립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1일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된 김관진 국방장관도 군의 관료화를 타파하고 전투형 강군의 육성만이 국가와 국민이 군에게 부여한 국토방위의 소임을 완수할 수 있는 첩경임을 강조하면서

1)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2월 1일 국방정신전력원 창설 축하메시지를 통해 “국방정신전력원이 우리 장병의 정신전력을 더욱 높여 전투형 강군 육성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연합뉴스, 2013). 이러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는 군 정신전력 체계와 시스템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군대문화에 일대 혁신을 가해오고 있다.²⁾ 그리고 이러한 환경변화의 연장 속에서 군 정신교육에도 일대 변화가 생겼다. 한동안 군 교육훈련의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월요일 오전과 금요일 오후에 실시되던 정신교육의 날이 과거 정신교육이 강조되던 시기처럼 수요일 오전으로 환원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정신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³⁾

또한 국방부는 전투형 강군 육성을 위한 정신교육강화를 위해 기존의 일일·주간·반기 정신교육의 체계는 유지하되,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전투사례 중심의 정신교육, 선 간부 신념화를 위한 간부교육 강화, 교관능력 향상위한 교관인증제 적용, 전투체험형 정신교육 등을 새로이 적용하여 전 장병이 항재전장의식을 견지한 강한 전사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국방부, 2013).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기존보다 변화되고 성과 있는 정훈교육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수용자인 장병들의 기본적인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정신전력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교과를 개편하고 방법을 달리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성과가 급격히 좋아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학습자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우수한 교수자에 의해 전달할 때만 교육성과가 극대화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조규락·김선연, 2007: 157).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해 국민안보의식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이 우려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한다면,⁴⁾ 대상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적절한 교육방법의 적용도 절실하지만, 정신교육활동이 이를 충분히 고려한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교육을 통해 진보적 가치를 습득한 학생들은 군에 입대해서도 정훈교육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관리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것

2) 장관취임사(국방부, 2010).

3) 국방부 지시에 의거 2011. 9. 1부로 정신교육의 날 교육은 수요일 오전으로 환원되었다. 이는 월요일 시행이 교육준비는 물론, 부대운영에 많은 제약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월요일이나 금요일 시행 이유였던 교육훈련의 연속성 차단 문제가 충분히 해소가능하며, 해·공군이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군이 동일날짜에 동일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전군이 동일시각을 갖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4)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한 ‘2013년 국민안보의식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53%가 6·25 전쟁의 발발연도를 모르며, 자신의 안보의식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51.9%에 불과하였다. 또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 정전협정 폐지선언, 대남무력도발 발언’ 등이 안보의식 변화에 미친 영향을 묻는 답변에 50.2%가 변화 없다고 답하여 안보에 무감각한 현실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외에도 북한에 대한 인식에 대해 44.1%가 ‘선의의 협력 및 경쟁대상’ 이라고 답하였으며, 55.7%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낮다고 답하였다(연합뉴스, 2013. 6. 23).

5) 지난해 육군이 기간장병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조사한 바에 의하며, 육군훈련소를 수료한 신병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95% 이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장병들의 안보의식(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 수준이 각 80·92·79%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대에서 정신교육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며, 상당수의 장병이 군입대전 갖고 있던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육군본부, 2013).

이 군의 임무라면, 내부적으로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입대 전 학생 시절부터 올바른 안보관과 국가관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학교에서의 안보교육은 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점점 그 비중이 축소되고 있으며 진보성향의 교원노조의 합법화 이후 더욱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부터 금년 초까지 교육계를 달구었던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관련 사태만 보아도 우리 교육계가 상당히 진보화 되었음을 잘 알 수 있다.⁶⁾

특히, 1992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6차 교육과정 개편이후 학교에서의 안보교육은 통일교육으로 명칭이 변경된 가운데, 민족적 동질성회복을 통한 통일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997년 12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련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어 유명무실해졌다. 근현대사를 포함한 정부수립의 정통성, 6·25전쟁과 북한체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던 도덕과(윤리)와 사회과 관련 과목들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변경되어 관련내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실정이다(강석완, 2010).

학교 교육과정에서 안보교육이 강화되는 일련의 조치가 없는 한 학생들의 안보의식 강화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군 입대 시점에서 병사들의 진보성향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장병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 정신전력 전반에 걸쳐 약화를 초래함으로써 안보 위기 시 국가차원의 위기관리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하여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의 안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유명무실해진 교련과목을 다시 살리는 것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안보문제를 다루는 도덕 및 사회과 과목을 다시금 필수과목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체계적이고 충분한 안보교육 시행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군의 역량을 학교 안보교육과 연계하여 청소년 안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산가족 상봉,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와 같은 남북대화국면 속에서도 동해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의 도발위협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들이 올바른 안보의식을 갖는 것은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가 위기관리 능력 제고라는 시대적 소명 달성을 위해 청소년 안보교육 강화는 장병 정신전력 강화와 연결된다는 인식을 토대로 군과 연계한 학교의 안보교육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초·중·고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안보관련 교육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학교교육과정과 통일교육지침, 개별학교의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정과교육으로서의 안보교육, 정과 외의 재량학습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되어 실시되는 각종 안보관련 활동 등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6) 보수적 성향의 교과서로 분류된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지난해 교육부의 검정신청단계에서부터 친일 및 독재미화 등의 논란에 휩싸이며 진보단체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고, 교과서 발행 승인이후부터는 조직적인 불채택 운동에 시달려야 했다. 이것은 사관의 차이도 있지만 그동안 진보화 된 역사계가 자신들과 생각을 달리 하는 그 어떤 논조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아집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논란의 결과 전국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단 한곳에 지나지 않는다(SBS, 2014. 3. 19).

아울러, 군과 연계한 학교의 안보교육 강화방안 모색을 위해 본 연구에서 채택한 기본적인 연구방법은 기존문헌 및 정부기관 제공자료, 통계 등에 기초한 문헌연구와 특정학교의 안보교육 실태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다만, 사례연구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강원도 양구군 소재의 중학교를 중심으로 확인하였으며, 기타 문헌과 통계자료는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①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통해 군 정신전력과 안보교육의 관계 고찰 ⇨ ② 학교 안보교육의 변천과정 고찰 및 특징 분석 ⇨ ③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안보교육 실태 분석 ⇨ ④ 사례분석 ⇨ ⑤ 군의 안보교육 지원실태 분석 ⇨ ⑥ 발전방향 및 방안 제시의 절차에 의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軍 정신전력과 안보교육의 관계

1. 안보와 안보교육

일반적으로 안보(Security)란 라틴어의 Securitas에서 유래한 말로서 ‘근심, 걱정, 불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안보에 대해 워터 리프만은 “국가가 전쟁을 피하고자 할 때에는 핵심가치를 희생시킬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고, 만약 도전을 받게 되면 해당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그러한 핵심가치들을 보존시킬 정도로 안전한 것”이라고 했으며, 로버트 멘델은 “체제, 국민, 생활방식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주로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방지함으로써 심리적, 물리적 안전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했다(육군대학, 2005).

또한 국방대학교에서 발간한 안보관계 용어집(2002)에는 안보에 대하여 “안보란 안전보장의 줄임말로써 군사, 비군사에 걸친 국내외로부터 기인하는 각종, 각양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추구해야하는 제반가치를 보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치, 외교, 사회, 문화, 경제,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제반정책체계를 종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기존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고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을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불의의 사태발생시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활동은 통상 정치 및 외교, 경제 및 과학기술, 사회 및 문화, 군사로 구분하며 특히 군사 분야는 평시에는 위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유사시에는 국가의 안전보장의 가장 효과적이며 결정적인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안보의 개념을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가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은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주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에 의해 의식, 태도, 행위 등을 학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이지현 외, 2012: 24-26).

따라서 안보와 교육이 합쳐져 만들어진 개념인 안보교육은 피교육생에게 안보의 개념과 중요성, 기본적인 안전보장활동을 이해시키는 교육활동을 의미하며, 동시에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내외적 위협

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안보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국가이익⁷⁾에 대한 개념과 이의 보존에 대한 의지를 갖도록 하며, 아울러 이를 위한 기반지식으로 국가의 가치를 인정토록 하고 위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제반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안보교육이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가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생존을 보장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스스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는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직·간접적인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⁸⁾ 다만, 사회에서의 안보교육은 연간 몇 시간 정도의 교양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사회교육의 특성상 전광판이나 홍보물, 방송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간접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비체계성, 분절성 등의 문제점을 안음으로써, 그 성과나 효율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권정은, 2003: 23).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안보교육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군과 미래의 국가를 이끌어갈 주역들을 키워내는 일반학교에서만 체계적 또는 정규교과의 일부로서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에서는 정신교육이라는 명칭 하에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범교과 통일교육이라는 개념 하에 개별교과는 물론,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일부로서 안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안보교육은 제6차 교육과정부터 과거에 사용되던 반공교육, 통일·안보교육의 용어를 통일교육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통일부에서 하달하는 통일교육지침에 의해 학교별, 학과별 안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안보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국가이익에 대한 개념과 이의 보존에 대한 의지를 갖도록 하며, 아울러 이를 위한 기반지식으로 국가의 가치를 인정토록 하고 위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제반교육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학교에서의 안보교육은 각 교육과정 시기마다 반공교육, 통일·안보교육 등의 명칭으로 불리다가 1992년 제6차 교육과정 개편이후 통일교육이라는 명칭 하에 실시되어 오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은 일반적으로 안보교육 영역에 해당하는 국가의 체제와 이념, 안보문제, 통일문제, 국제정세 등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의 목표가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의 정립을 통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데 있다.” 임을 고려할 때,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

7) 국가이익은 국가의 보호와 발전으로 개념화 할 수 있으며, 그 요소로서 국가의 물리적 보존, 신념체계, 정치체계, 영토의 통일성 유지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모든 요소를 다 보호할 수 없을 때, 최우선의 국가이익은 국가의 물리적 보존에 두고 있다(백종천, 1987).

8) 간접적인 안보교육은 언론보도나 공연, 전시회, 홍보활동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종 국경일 관련 기념행사나 방송, 연극, 드라마, 다큐 등 다양한 문화활동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는 통일교육이 안보교육임을 알 수 있다(통일부, 2013: 9).

특히, 학교통일교육이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인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객관적 판단 능력을 신장하며, 평화와 통일을 일구어 갈 수 있는 실천의지와 능력을 길러주는데 의의가 있음은 물론, ①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제고 및 통일외지 확립, ②통일시대 대비 역량강화, ③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신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④민족공동체 형성 노력, ⑤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⑥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에 주안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학교 통일교육은 안보교육으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에 대해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 “통일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통일 의지를 함양하는 교육이며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한 전영기(1997: 7),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과 북한에 관련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알게 하고 통일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민주적인 생활태도를 길러주며, 통일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통일의지를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한 이병도(1998: 9),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극대화시킴으로써 21세기에 한민족이 번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 실시되는 교육”이라고 정의한 노찬백(2005: 113), “통일교육은 학생들에게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약화된 인식을 고양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남북한 사회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 대한 이해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에 기초한 통일의지를 함양시키며 통일 환경과 과정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합리적 판단력을 습득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동시에 통일이후를 대비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기위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백승주(2008: 9) 등 일부 연구자들은 학교 통일교육을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만, 안보교육 전반을 포괄하는데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자들의 주장에서도 안보문제의 극복을 통해서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통일교육이라는 공통된 시각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로써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이 곧 안보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일교육을 안보교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다.

학교에서 안보교육 관련 내용은 학교 급별 다르게 적용되지만, 대체적으로 정규교과로서 도덕·사회과를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근현대사와 관련한 부분은 국사과에서 다루고 있다. 아울러 학교별 정규교과의 20%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교과내 재량학습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일부 안보교육이 진행되고 있다.⁹⁾

2. 군 정신전력과 안보교육의 관계

9) 재량학습은 교사가 정규교과 시간에서 일정시간을 할애하여 교과에서 직접 다루기 어려운 사항을 교과 단독 또는 통합교과 차원에서 다루도록 운영하는 학습이며, 주로 실기, 현장체험, 견학, 실습 등의 수업이 이루어진다. 규정된 시간은 정규교과의 20% 내에서 운용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 수업진도 등의 문제로 인해 그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력이란 ‘적에 대한 무력행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사력의 제 요소를 조직화한 통합된 전투능력 내지 전투하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국방부, 1997: 21), 영어로 “war potential”로서 정치력, 경제력, 정신력, 과학력 등 전쟁에 소요되는 일체의 인적, 물적인 힘을 말한다(김성완 역, 1986: 6).

이러한 전력은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유형전력은 병력, 무기, 장비, 물자 등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군사력의 제요소들에 의하여 갖추어진 능력을 뜻한다. 무형전력은 군인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간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과 내재적 가치가 결합된 총화로서 형태는 없으나 분명히 그 실체와 가치가 존재하는 힘을 뜻한다(김학욱, 1990: 7-8). 이 중 무형전력은 전투능력인 기술전력과 운용전력, 그리고 전투의지라 할 수 있는 정신전력의 3대 요소로 구분된다.

특히 정신전력은 정신(精神)과 전력(戰力)의 합성어로서, 정신을 전투력으로 승화시킨 상태이며 군대집단에서 지휘통솔상 부대가 갖고 있는 무형전력을 뜻하는 것으로써 지휘관은 부대원이 지닌 정신력을 부대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부대임무를 완수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정신을 전력화하기 위해 각급 지휘관은 지휘통솔 능력을 발휘하여 장병으로 하여금 전투의지와 필승의 신념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제반 군인정신 요소들을 함양케 해야 한다. 또한 주어진 부대임무를 자발적으로 완수 할 수 있도록 집단정신으로 규합·승화시켜 조직화한 힘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박일, 2012: 6-7).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가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을 극대화하지만, 가치 없고 내켜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평소 갖고 있는 능력조차도 발휘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급 부대 지휘관은 소속 부대원들이 부대의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들이 하는 일이 가치 있고 보람된다고 여기도록 지휘통솔력을 발휘해야 하며, 개개의 장병들이 갖고 있는 군인정신을 자극하여 이를 부대의 집단전력으로 승화되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성완(1986: 62)은 정신전력에 대해 “장병들이 필승의 신념을 견지하고 지휘관을 핵심으로 굳게 뭉쳐 부대임무를 완수 할 수 있도록 조직화된 힘”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국방부 정신전력지도지침서(1997: 23)에서는 “모든 장병이 지휘관을 중심으로 투철한 군인정신, 엄정한 군기, 충천된 사기, 공고화된 단결로 부여된 임무를 능동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조직화된 의지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신전력은 군기, 사기, 단결, 신념으로 구성된다. 이중 군기와 사기, 단결은 부대요소로서 지휘관에 의해서 강화되지만, 신념은 개인적 요소로서 가치관과 관련되며 이는 정신교육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신전력은 지휘관의 부대지휘활동과 정신교육을 통해서 강화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이지만 정신교육이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옥인호, 2004: 5). 이는 보불전쟁 당시 프랑스 제10연대장으로 메츠전투에 참전했던 뒤 피크 대령이 전사연구를 통해서 “소수의 군대가 다수의 군대를 이긴 전투에는 시간을 초월한 불변의 요소가 있는데 이는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부대정신 즉,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설파했던 것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개념은 군 정신교육이 인간 내면의 복합적인 정신요소, 즉 가치관, 태도, 신념, 도덕성 등을 자발적 행동, 창조적 행동, 가능한 행동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임무에 대한 정당성과 사명감을 제고하는 ‘가치실현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설득력을 갖고 있다(국방정신교육원, 1998: 27).

하지만, 현재 우리 군에서 정신교육은 일반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옥인호(2004: 4-5)가 지적하였듯이 우리 군에서 정신교육은 주로 안보적 성격을 지닌 정훈교육의 의미로 사용되며, 이는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의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 정훈문화활동 훈령(2013)에도 정훈교육의 목표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전투형 군인 육성에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군의 정훈교육이 정신전력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정의했듯이 안보교육이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국가이익에 대한 개념과 이의 보존에 대한 의지를 갖도록 하며, 아울러 이를 위한 기반지식으로 국가의 가치를 인정토록 하고 위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제반교육”이라고 본다면, 국가관·안보관·군인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군의 정훈교육은 안보교육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정훈교육이 일반적인 개념의 안보교육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군에서도 안보교육이 장병 정신전력 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에서의 안보교육은 군 장병들의 정신전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중 상당수가 수 년 내에 군에 입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에서 안보교육이 장병들의 정신전력에 영향을 미치듯 학교에서의 안보교육은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장병들의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안보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군 정신전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III. 학교 안보교육 실태분석

1. 학교 안보교육의 변천과정

1) 학교 안보교육의 시기 구분

현재 통일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교 안보교육은 정치·외교·사회·문화 등의 제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부침하며 변화해 왔다. 또한 학자들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안보교육의 변천 과정을 다르게 분류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만길¹⁰⁾이 분류한 반공교육기, 통일·안보교육기, 통일

10) 한만길은 안보교육(통일교육)이 정치적인 변화 그리고 정치교육 이념의 변화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고 밝히면서 교육과정상 나타난 안보교육의 명칭과 성격을 분류했다. 이러한 그의 분류가 갖는 특징은 안보교육을 정치

교육기로 보고 있으며, 각 시기별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던 명칭도 이에 부합하다.

반공교육기는 미군정시기인 교수요목기로부터 제4차 교육과정까지를 말하며, 주로 북한에 대한 반공, 적대의식, 공산주의 비판, 정부의 통일정책 옹호 등 ‘반공’ 중심의 교육이 주된 내용을 이루었다.

통일·안보교육기는 1980년대 후반에 실시된 5차 교육과정을 말하며, 이 시기에는 반공교육기의 교육내용에 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 민주시민의식 고취 등이 추가되었다. 특히 학교교육에서는 북한에 대해 위협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언젠가는 함께 살아가야 할 형제라는 이중적 존재 의미를 강조하였다. 동시에 남한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 등 제반 분야에서 북한보다 우월함을 인식토록 하는데 노력을 집중하였다.

통일교육기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으로서 제6차와 7차 교육과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 학교안보교육은 적극적인 통일방안을 모색하고, 통일 이후 남북한이 민족공동체를 구성해 더불어 살아 갈수 있도록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적 토대위에서 통일 중심의 안보교육이 시행되었다.

2) 시기별 학교 안보교육의 변천

(1) 반공교육기

반공교육시기의 학교 안보교육은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한 반공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에 기인하고 있다. 이 시기는 좌우익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겪었으며, 민족 최대의 위기인 6·25전쟁과 4·19 민주항쟁, 5·16 군사혁명 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반공이 강조되고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과 체제경쟁을 중시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특히, 5·16 군사혁명을 통해 집권한 제3공화국은 제2·3차 교육과정에서 선(先)경제 건설론과 승공통일교육에 중점을 두고 학교안보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분위기는 제5공화국 시기의 4차 교육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방직후 미 군정기부터 실시된 교수요목기 초기에는 소련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직접적인 반공보다는 민주시민의식을 강조하면서 간접적으로 반공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런 분위기는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추병완, 1992). 다음으로 6·25 전쟁 직후인 1954년부터 적용되었던 제1차 교육과정(1954년~1953년)에서는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4·19와 5·16을 거치면서 반공, 항일, 도덕 등의 교육이 문교부 시책으로 강력히 추진되었다. 특히 학교현장에서는 사회과에 포함된 도덕을 중심으로 반공교육이 모든 교과에 적용되었다(한만길 외, 1997).

1963년 공포된 제2차 교육과정(1963년~1974년) 시기에는 학교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반공도덕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사회과의 일부로 편입되었던 반공교육이 교육과정으로 신설되어 사회생활 교과목에서 반공도덕이라는 명칭으로 분리 독립되었으나 정규교과목이 아닌 비정규교과목의 성격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반공도덕생활이 교과활동, 특별활동과 더불어

교육의 하위개념으로 보고 정치적인 시각에서 안보교육의 변천과정을 파악하고 있다(한만길, 2001).

교육과정 3대 영역 중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반공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김영아, 2005: 51). 특히, 1968년에 발생한 북한의 청와대 기습사건과 울진·삼척 무장공비침투 사건은 정부와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최고조에 이르도록 만들어 학교 안보교육은 그 어느 때 보다 강하게 추진되었다. 1968년 12월 제정·발표된 국민교육헌장에도 반공이념이 하나의 교육이념으로 부각된 것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국토통일원, 1993: 19-23).

유신체제의 출범과 함께 이루어진 제3차 교육과정(1973년 ~ 1981년) 기간에는 비정규교과목이던 반공·도덕 생활영역을 정규교과로 편성하고 사회과에 포함되어 있던 도덕과목을 초·중등에서는 도덕으로 고등에서는 국민윤리로 분리 독립하였다. 또한 서울대와 국립사범대학에 국민윤리교육과를 설치하여 교사양성의 기회를 제도화하였고, 이들 학과에서는 이념과 사상문제, 북한문제, 남북관계문제, 통일문제 등을 정규교과에 포함하여 교육하였다. 이로서 학교에서 안보교육 전문교사가 양성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학교 안보교육이 교과 내부교육으로서 독자성을 확보하고 전문가들에게 의해 실시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시기로 평가 받고 있다.

제5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시행된 제4차 교육과정(1981년~1988년)에서는 안보교육이 국민정신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강화되었다. 공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사상역량 고양에 교육의 중점을 두었으며, 이는 학교교육에서 통일역량 강화보다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과 안보를 강조하는 현상을 유발하였다. 결국 학교 안보교육은 공산주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적 역량을 길러 민주적 평화통일의 신념을 굳게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다. 또한 그동안 소극적으로 교육되던 평화통일교육이 북한체제에 대한 우월감이 형성되면서 통일관련 내용이 안보교육 속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윤건영, 1992: 442).

(2) 통일안보교육기

제5차 교육과정(1988년~1992년)의 특징은 종래의 반공교육이 북한 및 공산주의체제 비판에 너무 치우쳐 민족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키우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반공생활 영역의 내용을 공산주의체제 및 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도록 바꿨다. 또한 북한이 장차 우리와 함께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할 통일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측면도 명확히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반공이라는 용어 대신 통일·안보교육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특히 명칭의 변경은 종래의 반공교육이 통일, 안보, 국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통일만을 강조할 경우 안보와 국방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안보와 국방도 학교 안보교육에서 강조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김영아, 2005: 60).

그러나 이 시기 학교 안보교육은 정치, 사회적 제반여건의 변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6·29 선언을 통해 사회의 민주화 요구가 봇물을 이루었고, 동서독의 통일을 시작으로 소련을 위시한 동구공산권의 급속한 붕괴는 더 이상 반공 및 안보중심의 냉전적 사고가 설자리를 잃는 듯 했다. 남북 간에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는 등 이전과는 다른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

하였다. 결국 이로 인해 학교에서의 안보교육은 통일교육을 중심으로 다루게 되었고, 일반적인 안보와 국방 등의 내용은 통일교육의 하위 영역에 위치하게 되었다. 또한 실질적인 교과에 있어서도 대학에서는 필수교양으로 이수하던 국민윤리 교과가 폐지되었고, 고교에서는 사회과의 안보관련 내용이 삭제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윤리도 윤리로 명칭이 바뀌고 주당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이수단위가 축소되었다(권정은, 2003: 28-29).

(3) 통일교육기

1990년대 초반 국제안보환경의 변화는 한반도에서 안보 및 통일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1992년 연말부터 적용된 제6차 교육과정(1992년~1997년)에서 통일·안보교육의 명칭이 통일교육으로 변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명칭의 변경은 과거 안보중심의 학교 안보교육이 통일중심으로 변경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통일을 위한 의식의 형성과 역량강화에 교육목표가 설정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1998년~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 시기의 통일교육은 단순히 남북 통일정책이나 북한의 실상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도 병행하는 등 그 과제나 범위 면에서 통일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적대적 반공교육은 통일과 화해, 북한에 대한 합리적 이해 등을 지향하는 교육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안보교육 전반에 대한 약화를 가져왔고, 사회전반에서 안보 불감증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사용될 정도로 안보교육은 등한시 되거나 소홀히 취급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대학 교련과목이 폐지되고, 도덕과에서 다루던 통일교육의 범교과화가 시도되었으며, 초중고교의 안보교육을 담당하던 도덕과의 단위 시간이 감소(주당 2시간→1시간)되었다. 또한 유치원에서 북한에 대해 민족적 측면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한편,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통일교육이 시도되었다. 특히 정부주도로 추진된 남북화해협력 정책은 기존 학교 안보교육 전반의 쇠퇴를 가져오고, 안보와 국방, 북한실상 교육은 민족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통일역량을 증대하기 위한 통일교육에 밀려 가볍게 취급되었다. 특히, 고교에서 교련과목의 유명무실화는 더 이상 안보와 반공교육을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주었다. 하지만, 제7차 교육과정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재량학습 범위에 안보교육이 포함되고, 사회과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과목마다 마지막 단원에서 통일 및 안보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한 것은 긍정적인 조치로 보인다.

(4) 시기별 학교 안보교육의 평가

학교 안보교육은 교육과정이 적용되던 때마다, 시대적 배경과 연계되어 변화되어 왔으며,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 수많은 부침의 과정을 겪어 왔다.

특히, 6.25전쟁이라는 민족사적 대비극은 우리 사회 내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문화를

형성하였고, 이에 대한 강도가 셀수록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강화되었다. 동시에 학교에서도 북한을 통일 대상이라기보다는 적으로 보고 이를 극복 또는 격멸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결국 학교의 안보교육은 각 시기별 안보환경에 따라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각 시기별 안보교육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공기의 안보교육은 초창기 공산주의의 위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시기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북한을 적으로 보고 반공 또는 멸공에 중점을 두고 교육이 실시되었다. 또한 시대적 배경이 북한에 대해 옹호적이거나 관대한 입장을 취할 경우 간첩으로 몰릴 뿐 아니라, 사회분위기 상 그러한 행위들이 용서되지 못하는 성향을 보여 전반적으로 안보교육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안보의식은 필연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안보교육은 국민교육현장에 반공정신이 포함될 정도로 매우 강력하게 시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맹목적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사상전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온당한 비판과 충분한 설득력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단점이 지적되기도 한다(김영아, 2005: 57).

둘째, 통일·안보교육기의 안보교육은 6·29선언으로 촉발된 사회의 민주화 영향으로 맹목적 반공 교육에서 벗어나 공산주의체제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교육이 시행되었다. 또한 통일과 안보를 동시에 강조함으로써, 안보의 바탕위에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부합된 교육을 추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교고에서 안보교육을 다루는 윤리과목이 축소되고 안보교육 자체가 서서히 도태되는 등 전체적으로 안보교육이 소홀히 다루어짐으로써, 이후 통일교육 시기에 안보교육이 결정적으로 약화되는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교육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통일교육 시기 중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학교 안보교육은 안보교육이 도덕(윤리)이나 사회과에 머물지 않고 범 교과로 확산되어 각 교과에서 관련 안보교육 내용을 다루도록 하는 긍정적인 변화의 시기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원노조의 합법화 이후 학교 현장에서 안보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터부시되고, 일부 교사들은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안보교육을 기피하는 등 현장에서부터 안보교육이 약화되기 시작한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초·중등학교에서 국민윤리 이수시간이 주당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되고 대학에서부터 교련과목이 폐지되다. 또한 안보보다는 통일을 우선시하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학교교육에서도 남북화해와 통일과 관련된 주제가 안보관련 내용보다 우선하는 등 안보교육이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서부터 안보불감증이라는 말이 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학생은 물론,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2. 학교안보교육 실태 분석¹¹⁾

- 11) 정부의 교육과정 특히, 제7차 교육과정과 관련된 자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교육과정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ncic.re.kr/nation.index.do>).

1) 제7차 교육과정 학교 안보교육 기본지침

현재 일반학교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2009 개정 내용이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학교 안보교육의 기본지침은 통일부에서 하달한 통일교육 지침이 교육과정에 적용되고 있다. 통일부산하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통일교육지침서는 학교급 및 교과별 통일교육 지침이라는 명칭으로 학교에서의 안보교육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 제작된 통일교육지침서에 의하면 학교 안보교육의 주안점은 ①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통일외지 확립 ② 통일준비 역량 강화 ③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신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④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 ⑤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⑥ 북한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안점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학교 안보교육의 기본지침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학교급별로도 여기에 명시된 안보교육(통일교육, 이하 안보교육으로 통일) 지도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안보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학교급별 안보교육 지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초등학교 안보교육 지도방향의 특징은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통일적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에게 남북분단의 원인이나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 등을 전혀 다루지 않고 오로지 통일을 위한 동질성 회복과 북한 주민에 대한 동포애적 감성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안보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견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교사들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북한에 대해 환상적이거나 우호적 이지만 심어줄 개연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반면, 중·고등학교에서의 안보교육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실상과 남북분단 및 통일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토록 하여 전반적으로 올바른 안보관을 견지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안보적 측면에서 북한정권의 위법성과 군사적 위협 등은 다루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북한실상에 대한 균형적 이해와 통일을 위한 제반 문제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충분한 안보의식을 견지토록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학교급별 안보교육 지도방향

구분	내용
초·중·고·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들에게는 개념이나 기능 중심의 통일교육이 아니라 상황 중심(또는 생활중심), 바람직한 가치 및 태도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정서적 접근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흥미를 북돋우는 접근을 중요시해야 한다. • 분단의 아픔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해 분단 극복의 문제를 정서적인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분단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학생들은 북한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서 언어와 역사, 전통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원래 하나의 국가였으나 국제적 요인과 민족 내부적 요인에 의해 분단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중·고·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북한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문제를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 중학교 통일교육에서는 안보의 중요성, 외국의 통일사례, 우리나라 역사 속의 통일사례, 현재 우리나라의 통일 노력, 남북분단의 원인과 폐해, 분단의 역사적 전개과정, 북한의 지배체제, 이데올로기 및 사회, 경제, 문화, 교육분야의 주요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 고등학교 통일교육 과정에서는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문제를 종합적, 체계적, 논리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한다. •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체계적인 통일, 북한관련 지식을 토대로 통일문제를 한반도라는 시각을 넘어 동북아와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료: 통일교육원(2013).

2) 정규 교과별 안보교육 지침 분석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6차까지의 교육과정과 다르게 학교 안보교육이 도덕과와 사회과 중심에서 벗어나 범교과 차원에서 안보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선교육과정에서는 통일부의 통일교육지침에 근거하여 교과별 안보교육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교과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정규 교과별 안보교육 지침을 분석해 보면, 전반적으로 통일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남북 분단에 대한 원인과 폐해 등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차이 또는 동질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준비토록 하는데 중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학교 안보교육의 중심이 되는 도덕과의 첫 번째 지침을 보면 “도덕교과는 다른 교과에 비해 통일·북한관련 문제를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로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른 교과 통일교육의 기초가 되는 교과로서의 특징을 지닌다.”라고 명시함으로써 학교의 안보교육이 통일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전쟁의 폐해와 위협, 바람직한 통일의 길, 올바른 북한이해, 통일 후 지향해야 할 가치, 통일을 위해 갖추어야 할 덕성 등에 강조점을 두도록 하여 학교 안보교육이 안보의식 고취보다는 민족적 동질성 회복과 통일에 주안이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범교과적 차원에서 적용되고 있는 국어과나 예체능과도 통일시대에 대비해 남북 간 언어의 이질성 극복, 음악 및 문화의 차이 극복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규 교과에 반영된 안보교육이

통일교육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사회과에서는 우리 근현대사의 주요 사항들을 가르치도록 하고, 공산주의를 다룰 때 소련과 중국의 팽창정책으로 야기된 남북분단과 6·25전쟁 등이 함께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광복이후 역사에 해당하는 미소 연합군의 점령으로 인한 한반도 분할, 대한민국과 북한정권의 수립, 6·25전쟁과 분단고착, 남북 긴장관계 속에서 냉전체제 형성 등을 고학년에서 다루도록 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교과내용 편성보다 더 큰 문제는 고교에서 학교 안보교육의 기준이 되는 윤리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변하여 이를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며, 교련과목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부터 유명무실화 되었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국가안보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국가안전 및 보건위생 과목으로 성격이 변경되었고, 이마저도 남자고교에서는 과목이 모두 폐지되었으며 여고에서 만이 보건(위생) 과목형태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¹²⁾ 따라서 정규교과를 통해 체계적이고 완전한 형태의 안보교육을 기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3) 정규과정 외 교육활동에 관한 안보교육 지침 분석

학교안보교육의 기준이 되는 통일교육지침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안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제7차 교육과정의 지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통일실현의지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학생회, 계발활동, 축제,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봉사활동 등 특별활동과 학교행사활동을 통일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활동공간인 계발활동은 통일문제를 학생들의 관심사로 끌어들이어 일상생활에서 체험과 실천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있다.

셋째, 학교행사에서는 통일, 북한관련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통일가요제, 통일축제, 통일 사이버 문예대회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도록 한다.

넷째, 학생회를 중심으로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 북한이탈주민 가족 돕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북한주민을 동포이자 이웃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다섯째, 현장체험학습 활동으로 분단의 상징적 지역이나 통일의지를 다질 수 있는 장소, 즉 남북출입사무소, 판문점, 통일전망대, 통일관 등을 견학하도록 함으로써, 분단이나 통일문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12)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교련과목은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으며, 특히 기존의 교련교사들 대부분은 학부전공에 따라 타 교과 교사로 전과를 완료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련과목을 가르칠 교사가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여고에서는 보건·위생이라는 명목으로 교련과목이 일부 남아서 진행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해당교사들의 전과나 퇴직이 이루어질 경우 자연스럽게 과목폐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ncic.re.kr/nation.index.do>).

여섯째, 학생들의 수련활동도 단순히 심신수련의 차원을 넘어 통일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학교의 교과교육 차원에서 담아내기 힘든 통일교육 활동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제7차 교육과정 2009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을 포함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이 포함된다. 2013년에 발간된 통일교육지침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도 안보교육이 가능토록 이에 대한 지침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통일교육원, 2013: 23-24).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는 통일, 북한관련 주제를 탐구하는 활동이나 소집단 공동연구 등을 통해 통일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둘째, 자기주도적 학습에서 통일, 북한관련 주제를 다룰 때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주제(예컨대, 북한 학생의 여가생활 등)나 학생들이 관심을 두는 시사성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

셋째,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통일, 북한 관련 주제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자율적 토론과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넷째, 토론의 결과는 가능한 범위에서 학생들의 실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이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현실감을 부여하기 위해 탈북청소년 등 북한 이탈주민을 초청하여 북한의 실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화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 명시된 정규교과 외 활동과 관련한 안보교육 지침을 분석해 보면, 전반적으로 통일 및 북한관련 주제를 다루고 체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체험 및 실습형 수업, 자기주도학습 등도 북한에 의한 도발과 안보위협을 느끼는 활동보다는 분단의 아픔이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고 병영체험을 한다든지, 군이나 참전용사에 의한 안보교육 등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안보시설을 견학 및 체험토록 함으로써, 일부나마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 학교안보교육 적용 사례

교육부에서 작성한 교육과정은 각 급 학교에서 학교교육계획서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교육현장에 적용된다.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학교안보교육지침도 교육과정을 통해 각 급 학교의 학교교육계획서에 반영되어 정규교과와 교과 외 활동으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실제 각 급 학교의 교사들과 학교안보교육의 적용여부를 확인해 보면, 통일부 통일교육지침서나 교육과정에 명시된 지침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 남해 미조초교 이상제(57) 교장은 지역 교육청이 안보교육 관련 공문과 교육자료를 일선 학교에 보내고 있지만, 젊은 교사들의 안보의식이 상당히 약화돼 있는 데다 학력 신장 위주의 교육에 혈안이 돼 있어 안보교육이 뒷전이 된

게 문제라면서 “학생들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6·25전쟁 경과 등을 역사 교육의 일환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¹³⁾, 이 정도로 학교에서 안보교육이 등한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각 급 학교의 교육운영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교육계획에 안보교육이 포함된 경우는 나름대로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강원도 양구 및 인제지역의 중학교의 안보 교육 실태를 학교교육계획에 기초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학교에서 안보교육의 적용실태를 확인 및 분석하고자 한다.

1) 정규교과에 반영된 안보교육

안보교육과 관련하여 정규교과의 학습단원 및 내용편성은 교육과정에 명시된 기본지침을 따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육성과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교육목표와 중점, 그리고 수행평가 요소라 할 수 있는 주요활동이 제시된 교과별 운영 방침을 통해 안보교육의 반영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2013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양구지역 중학교의 안보관련 과목 중 도덕과, 사회과, 국어과의 운영방침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2>, <표 3>, <표 4>와 같다.¹⁴⁾

<표 2> 국어과 운영방침

교육 목표	• 국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어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문화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교육 중점	• 창조적인 국어능력이 향상되도록 학년별 내용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영역별 내용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지도한다. • 국어를 정확하고, 비판적이며,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국어활동을 통한 고등사고력과 심미적 안목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활동	국어경시대회(6월), 각종 백일장 참가, 독서의 달 행사(10월)

13) 미조 초등학교의 이상제 교장은 학교 현장에서의 안보교육실태에 대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보교육이 등한시 되고 있음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하였다(서울신문, 2011. 6. 25일자).

14) 양구지역 중학교의 안보관련 교과에의 운영방침은 강원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제7차 교육과정 2009개정안을 따르고 있어 각 학교가 대체적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양구교육지원청, <http://www.kwgyed.go.kr>).

<표 3> 도덕과 운영방침

교육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각 개인의 보람 있고 책임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와 태도를 기르며 사회공동체 생활에서의 시민윤리와 더불어 사는 삶의 덕성을 함양한다.
교육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고장의 인물학습을 통해 강원도의 얼과 전통을 계승하도록 한다. • 도덕의 필요성과 가치 선택 능력의 신장 • 공부에 대한 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진로와 삶을 설계하도록 한다. • 올바른 지식을 생활 속에서의 실천하는 의지와 실천력을 기른다. •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편견을 극복하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한다.
주요 행사	통일기원행사(6월), 통일교육원입소 / 통일기원 문예행사

<표 4> 사회과 운영방침

교육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와 태도 내면화 • 민족의 정체성 확립 및 세계시민 자질 육성 • 참여하는 시민 생활, 참 민주주의의 이념 실천
교육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주도적 탐구활동을 통한 기본 개념과 원리 이해 •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문제 해결력 신장 • 지역문화 창조자로서 인간의 모습이해, 바람직한 문화 계승발전 방향 탐색
주요 행사	통일문예 행사(6월)

※ 자료: 강원도 교육청(2012).

위 표에서 보듯이 정규교과의 운영방침에는 해당 교과별 교육목표와 중점을 다루고 있지만, 안보와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사회과에서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민족의 정체성확립, 참 민주주의의 이념 실천 등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과 관련한 내용을 목표로 설정하여 국가관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으며, 도덕과와 사회과의 주요행사에서 통일기원행사, 통일교육원 입소, 통일기원 문예행사 등을 반영하여 통일 또는 안보교육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해당학교의 일선 교사들과 인터뷰 결과 교과에 반영이 되어있어도 교육의 목표와 중점에 배제되고 특히 평가요소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내용은 생략할 수도 있으며, 가볍게 넘어가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안보관련 사항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며, 정치적인 요소도 많아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 만큼 해당내용에 대해 심층 깊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¹⁵⁾

결론적으로 정규교과에서 안보관련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수행평가 요소로서 행사에 대한 평가를 일부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규교과에 대한 안보교육의 정상화와 반영이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15) 교사인터뷰는 양구지역 3개 중학교의 국어과, 사회과, 도덕과 교사 9명을 대상으로 시도하여 이중 전화인터뷰에 응한 4명의 교사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였다. 인터뷰 기간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시도되었으며, 내용은 해당교과에 안보교육요소 반영 및 실제 교육여부, 미실시 또는 축소시행 시 사유 등으로 한정하여 확인하였다.

2) 정규교과 외 활동에 반영된 안보교육

2009년 개정으로 2011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정규교과 외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일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의 편성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3년간 306시간으로 매년 102시간 동안 편성되어 진행된다.

강원 양구지역에 있는 Y중학교의 편성현황을 보면 다음의 <표 5>와 같은데, 다른 2개의 중학교도 기본내용이 동일하다.

<표 5>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현황

영역	시수	성격	활동
자율활동	17	학교는 학생중심의 자율적 활동을 추진하고, 학생은 다양한 교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 적응활동(4) - 자치활동(4) - 행사활동(별도확보) - 창의적 특색활동(9)
동아리활동	84	학생은 자발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여 협동하는 태도를 기르고 각자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한다.	- 각 동아리 활동(84)
봉사활동	10	학생은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배려의 활동을 실천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한다.	- 교내 봉사활동(10)
진로활동	4	학생은 자신의 흥미, 특기, 적성에 적합한 자기 계발 활동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한다.	- 자기이해 활동(1) - 진로 정보탐색활동(1) - 진로계획 / 체험 활동(각 1)

※ 자료: 양구 Y중학교(2012).

위 <표 5>에 의하면 자율활동은 연간 17시간을 진행하고 적응활동 4시간, 자치활동 4시간, 창의적 특색활동 9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사활동은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수행토록 되어 있다.

자율활동에서 안보교육이 가능한 요소는 창의적 특색활동과 행사활동으로서 창의적 특색활동은 학급별로 교사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활동내용을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으므로, 안보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활동은 학예와 체육 등 행사활동을 통하여 평소의 학습 성과를 창의적으로 발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협동 및 봉사의 정신과 연대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한다. 특히, 각종 수련활동에 참여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극기 및 진취적 기상을 기르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수련활동 시 군부대 병영체험이나 특전캠프, 해병캠프 등을 통해 안보의식을 함양토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표 6>은 양구지역 S중학교의 행사활동계획이다.

<표 6> 연간 행사활동 계획

월/일	행사내용	월/일	행사내용
3월 2일	입학식	7월 11일-13일	수련회
5월	체험학습	10월 14일	체험학습
5월 21일	청솔제	12월 22-23일	스키캠프

※ 자료: 양구 S중학교(2012).

동아리 활동은 관심과 취미가 있는 분야에 참가하여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신장시키기 위해서 실시한다. 교사와 학생들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동아리 활동부서를 조직하여 과제연구와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특기와 소질의 계발을 위해 방과후 특기·적성 수업과 연계시키고 있다. 시행 시기는 매 홀수 주 금요일 오후에 실시하며, S중학교는 8개의 동아리 활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안보교육 가능 요소는 4-H반이나 청소년 리더십 훈련반, 청소년연맹 등에서 현장체험으로 안보교육이 가능하며, 동아리 활동간 지도교사의 의지로서 일부 안보교육적 요소를 가미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리 활동반 편성 현황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2013학년도 동아리 활동반 조직표

부서명	지도 교사	인원	장소	
			평山市	우천시
4-H반	박형기	16	영어전용실	영어전용실
녹색봉사반	이성진	15	3-1	3-1
배드민턴반	김학창	12	청술관	청술관
복싱반	황덕근	14	복싱장	1-1
비전 세우기반	한장옥	10	1-2	1-2
생활예술반	곽성수	11	2-1	2-1
청소년 리더십 훈련반	한순임	7	수준별교실	수준별교실
청소년연맹	이연희	10	미술실	미술실

※ 자료: 양구 S중학교(2012).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고 호혜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다. 현재 S중학교에서는 봉사활동을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 활동’(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교육과정 외의 봉사활동’(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 학교 정과활동으로 일괄 적용하여 연간 10시간을 시행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학교와 지역별 자원봉사센터나 인증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 특히, 봉사활동은 질적평가 후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이기에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현재 S중학교에서는 위문활동 영역에 군부대 위문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군부대 위문활동은 병영 체험이나 방문행사, 또는 안보견학 등으로 대체가 가능해 일부나마 안보적 요소를 함양하고 있다. S중학교의 봉사활동 내용은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봉사활동의 영역

영역	주요활동 내용
일손돕기활동	•복지시설 일손돕기활동 •공공시설, 병원 일손돕기활동 •농어촌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병약자, 군부대 등 위문 활동
캠페인활동	•공공질서 확립 캠페인 •교통안전 캠페인 •학교주변 정화 캠페인 •환경 보전 캠페인 등
자선구호활동	•재해구호, 불우 이웃돕기, 국제협력과 난민구호 활동
환경정화활동	•청결정화 운동 •깨끗한 환경(해양, 하천)만들기
환경시설보전활동	•문화재 보호 •자연 보호(새집 달아주기 등)
지도활동	•동급생 하급생 복지시설 아동지도 •교통안전 지도
지역사회개발활동	•지역사회 조사 •지역사회 가꾸기 •지역사회 정보화 등
기타활동	•위 세부 내용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활동

※ 자료: 양구 S중학교(2012).

한편, 적응 및 진로활동은 진로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병행하여 연간 4시간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안보적 요소를 포함하기에 매우 제한된다.

이상과 같이 강원 양구지역의 중학교 교육계획서를 토대로 중등학교에서 정규교과 외 안보교육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과외 활동에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교육적 요소는 매우 미미하게 편성되어 있다. 일부 동아리활동이나, 정규교육시수에 포함되지 않는 행사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병영체험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고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학교안보교육 평가

학교안보교육에 대하여 강원도 양구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적용실태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측면과 학교 적용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전반적으로 안보교육이 형식적이고 비체계적이어서 조속한 시일 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정책적 측면과 학교 적용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책적 측면에서의 평가

정책적 측면에서 학교안보교육의 평가는 교육지침 또는 교육과정에 기초해서 평가해 볼 수 있다.

첫째, 학교 안보교육은 6차 교육과정 이후 안보교육이라는 용어대신 통일교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안보교육이 없었거나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둘째, 학교 안보교육의 목표측면에서 볼 때, 학교 안보교육 즉 통일교육의 목표는 ①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한 통일관 정립 ② 평화통일의 의지와 역량의 함양 ③ 통일 환경 및 북한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에 있는데, 안보관 확립은 세 번째 목표로 우선순위에

밀리며, 오히려 민족공동체 의식함양과 통일에 중점을 두고 있어 안보의식 확립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셋째, 안보관련 교과에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으로부터 6·25전쟁, 근대화과정 등 근현대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교육지침에 따라 다루고 있지만, 실제 평가요소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아 교육현장에서 이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

넷째, 안보관련 전문교과의 선택과목화와 교련과의 폐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안보교육의 기회가 상실되었다.

다섯째, 학교 안보교육을 위해 국방부와 교육부, 한국교총 간에 MOU체결이후 교육부 및 교육청 차원에서 안보교육 지침이 하달되는 등 학교 안보교육 활성화 여건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안보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교육과정 상에 명시하지 않고 학교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토록 함으로써, 학교장과 교사의 재량에 따라 안보교육이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충일이나 국군의 날 등 주요한 안보관련 기념일이 있는 시기만큼이라도 학교에서 안보교육과 기념행사, 체험 등을 당연행사로 진행토록 규정화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학교 안보교육에 대한 정책적 측면에서의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다. 기본적으로 용어와 목표에 있어서 안보보다는 민족을 우선시하는 통일이 강조되고 있으며, 관련 교과의 교육이 폐지되거나 선택과목으로 바뀌어 안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현상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국가관이나 안보관을 확립할 수 있는 기념일 관련 특별교육과 행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자율에 맡김으로서 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이 되었다.

2) 학교 안보교육의 적용측면에서의 평가

학교 현장에서 안보교육의 적용상태를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교육과정에 명시된 지침에 의거 학교에서는 안보교육과 관련한 교과별 교육목표와 중점에 안보교육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교과에서는 안보와 관련한 내용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만, 사회나 도덕과에서 일부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체험활동으로 통일교육원 입소와 통일문예행사 등이 계획되어 있는 정도이다.

둘째, 학교현장에서 안보관련 사항은 민감한 정치적 요소를 다루고 있어 대부분의 교사들이 불필요한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안보교육을 하려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 평가뿐 아니라 입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외면 받고 있다.

셋째, 정규교과 외 활동으로서 안보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학교 행사 등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안보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학교급 또는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한 특지를 갖고 있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안보교육은 학교 교육계획서 상에 구체적으로 병영체험이나 군부대 방문 및 견학, 전방체험, 안보초빙강연 등이 명

시되지 않고, 단순히 극기 및 체험활동, 군부대 위문 등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안보교육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학교현장에서 안보교육은 정규교과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과 외 활동으로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어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알 수 있다.

5. 군의 학교 안보교육 지원실태

군은 청소년들의 안보의식 고취가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위기관리 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하에 청소년 안보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3월 25일 교육부, 한국교총 등과 학교 안보교육 지원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헤럴드경제, 2011. 3. 25일자).

군의 안보교육은 크게 작전지역내 학교에 대한 안보교사지원과 장군단 모교방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작전지역 안보교육 지원은 나라사랑 교육이라는 명칭으로 2011년 이후 매년 1,000여회가 실시되고 있으며, 장군단 모교방문 교육은 육군의 전 장군들이 자신의 모교를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매년 300여회 이상 실시되고 있다(육군본부, 2013).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학교에서 안보교육을 받아본 경험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안전행정부의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중 56.5%가 학교에서 안보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조사결과(21.0%)와 비교해 35.5% 이상 높아진 것이다(안전행정부, 2013). 이외에도 군은 각급 부대별로 자매학교를 중심으로 병영체험과 부대방문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보관광지를 관할하고 있는 일부 전방부대의 경우에는 수시로 안보견학과 병영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안전행정에서 리서치 & 리서치와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과 중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성인들의 경우 가장 효과적인 안보교육방법으로서 ‘TV,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가 42.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교에서 안보교육’ 33.2%, ‘안보체험, 관광지 개발’ 10.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안보교육을 경험한 청소년의 73%가 안보교육이 안보의식 고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답하여 군의 안보교육 지원이 효과적이었음을 입증하였다(안전행정부, 2013). 하지만,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안보교육이 계기일과 관련한 일회성인 경우가 많으며, 지역학교 안보교사 지원과 장군단 모교방문을 제외한 나머지 안보교육 활동들은 비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성에 의문이 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국방부에서 나라사랑 교관요원을 양성하여 비교적 전문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시행 자체는 지역 교육지원청 및 개별학교들과 협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계획적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수년 간 연평도 포격도발, 핵실험, 개성공단 폐쇄, 미사일 발사 등 북한에 의한 도발이 많아

학교에서도 큰 부담 없이 군 간부를 안보교사로 초빙하고 병영체험 및 견학 등의 안보교육을 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안보적 측면에서 북한과 안정기에 접어들 경우, 현재와 같이 부정기적이고 비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안보교육은 당위성 상실로 그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군에서 학교에 대한 안보교육 지원은 정치적, 안보적 상황이나 시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다 체계성을 갖고 정책적 측면에서부터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군과 연계한 학교 안보교육 강화 방안

1. 기본방향

정신전력 강화측면에서 볼 때, 학교의 안보교육 강화를 위해 군과 연계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진다. 이는 군의 안보교육 관련 노하우가 학교에 전수될 때, 그동안 약화되었던 학교의 안보교육 역량을 조기에 강화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군 입대 장병들이 보다 강화된 안보의식을 견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과 연계한 학교안보교육 강화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학교 안보교육의 강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통일교육이라고 명명된 학교 안보교육의 명칭을 안보교육으로 변경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국방부와 교육부, 한국교총이 맺은 정책협약의 수준을 넘어 범 정부차원의 학교안보교육 강화대책이 수립되고, 관련 법규의 정비 및 추가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육자치제에 따라 교육청 및 개별학교 차원의 안보교육 강화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국방부 차원에서 학교 안보교육 지원에 대한 조정·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부대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가칭 안보교육지원센터와 같은 컨트롤타워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학교 안보교육 지원을 조정·통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2. 학교 안보교육 강화 방안

1) 정책적 측면

군의 입장에서 볼 때, 학교 안보교육의 강화는 군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적 측면에서 학교 안보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군과 연계한 학교 안보교육 강화 방안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학교 안보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책적 측면에서 학교 안보교육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통일교육으로 불리고 있는 학교 안보교육의 명칭을 안보교육으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안보교육은 정권유지 또는 남북대립을 심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때도 있었지만,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건전한 안보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명칭을 환원하여 학교에서 안보교육이 새롭게 강조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보의식이 제고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교육 중심의 학교 안보교육을 거시적 측면에서 안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꾸도록 통일교육지침서에 명시된 학교 안보교육의 중점과 학교급 및 교과별 지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통일문제 및 남북분단 극복을 우선시하는 현재의 학교통일교육지침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립과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을 우선하도록 조정하고, 통일과 관련한 요소는 후순위 중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족의 통일과 동질성 회복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이상으로 체제와 국가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상 안보교육을 강화하여 반영해야 한다. 현재 적용중인 7차 교육과정은 2009개정안부터 국민공통과목이 없어지고 선택교과제 적용으로 인해 도덕 및 사회과 같이 안보교육을 실시하는 과목들이 선택으로 변경되어 정규교과에서 안보교육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물론,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병영체험이나 군부대 위문 및 견학이 가능해 보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도 많은 부분이 교육과정 지침이나 교육청과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으며 교장과 교사의 제량에 의해 안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범주에 있다.

2) 제도적 측면에서 학교안보교육 강화 및 관련법규의 정비

지난 2011년 3월 25일 국방부와 교육부, 한국교총은 청소년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군에서 적극적으로 안보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MOU를 체결한 이래, 학교현장에서 안보교육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적으로 정책협약에 기인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오히려 청소년 안보교육이 증가된 원인은 2010년도에 북한의 도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결과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이 매우 낮게 나오므로써, 청소년 안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여론형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북한과 대화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수년 내 안보교육은 약화될 수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6월 28일 당시 서울시교육청 광노현 교육감이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청 주관 정책사업의 80%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대표적인 폐지 행사로 호국보훈의 달 행사와 각종 기념일 관련 교육을 꼽은 것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¹⁶⁾

따라서 언제든지 일방의 요구나 조정에 의해 파기될 수 있고, 강제적 구속력이 없는 정책협약보다는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안보교육 강화를 위한 군의 지원이 제도화 되도록 해야 한다.

16) 서울시는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통해 교육에 전념하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면서 교사행정업무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서 대표적인 행정사무로 호국보훈의 달 행사, 국군의 날 행사, 각종 기념식 행사가 지목되었다(노컷뉴스, 2011. 6. 28일자).

이를 위해서는 우선 평생교육법에 교육관련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군의 안보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안보전문교육기관 또는 하나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군의 위상이 정립되도록 법규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군의 학교안보교육 지원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제도로써 자리매김 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안보교육의 이수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우수한 성적을 얻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데 있으므로 성적과 상관이 없는 안보교육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이를 강화하려 할 때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규교과에서 안보관련 내용을 평가요소에 반영하도록 하고, 교과 수행평가에서도 안보현장체험, 군부대위문, 안보관련 행사참여 등이 포함토록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 범주에 군과 연계한 안보교육 활동을 반영해야 한다. 병영체험, 안보 및 전사적지 방문, 전방견학, 군부대 위문, 각종 방문행사 등의 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또는 행사의 범주에 포함하고 이를 관련활동의 이수로 인정하도록 교육과정 또는 학교교육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넷째, 대학 입학전형에서 안보교육 이수 내용이 유효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평거나 입학전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과나 활동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안보교육이 대학입학전형에 포함될 경우, 학부모들은 안보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임은 물론, 학교 측에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부로서 군부대 위문이나 안보교육, 병영체험 등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 측면에서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입학시 필수 평가요소 중의 하나로 안보교육 이수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자격증 취득시 가산점을 부여하듯 안보교육 이수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부여하여 관심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최소한 안보관련 학과나 사관학교, 군사학과 학생 선발시 안보교육 이수 여부를 필수자격 또는 중요한 가산요소로 지정하여 안보교육을 통해 건전한 안보관을 갖춘 학생들이 우수한 군 간부 또는 관련 직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3) 교육 자치제에 따라 교육청 및 개별학교 차원에서 안보교육 강화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자치제에 따라 광역시와 도 단위로 직선 교육감이 교육청을 이끌고 있다. 중요한 교육정책은 교육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민선 교육감들도 나름대로 교육철학을 갖고 정해진 권한 내에서 책임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민선 교육감이 이끌고 있는 교육청은 교육부와 임무분장을 통해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 자치권을 행사하여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별학교들은 교육청의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교육계획도 교육청에서 지시된 방침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정과교육 외에 이루어지는 각종 방과후 학습,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제량활동, 행사활동 등은 교육청의 영향을 많

이 받을 수밖에 없다. 정과에 해당하는 교육은 전국적 차원에서 동일수준과 과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교육감이나 학교장의 재량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의 안보교육 강화는 실제 학교현장에서 안보교육을 강화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각 교육청에서 안보교육을 강화토록 방향을 정하고 지시를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방부 차원에서 교육부와 협약이나 협조를 통해 안보교육을 강화토록 하는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광역시 및 도 단위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차원에서 개별적인 협약을 통해 안보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를 테면, 서울시 교육청은 수방사, 경기도 교육청은 3군사령부, 강원도 교육청은 1군사령부, 기타 지역 교육청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향토사단이 주체가 되어 협약을 맺고, 안보강사지원, 병영시설 개방 및 체험행사 지원, 호국문예행사, 계기 기념일 관련 안보행사 지원 등의 안보교육 활동이 교육청 차원의 지시에 의해 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실제 안보교육이 이루어지는 개별 학교에서 안보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학교교육 계획서에 안보교육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목 수행평가요소에 안보교육 관련 활동이 반영되도록 해 안보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4) 국방부 차원에서 학교 안보교육지원의 조정·통제

현재 학교 안보교육지원은 국방부 지침에 의거해 개별부대 차원에서 일반학교와 접촉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지휘관의 의지에 따라 부대별로 지원정도가 달라질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부대가 차지하는 위상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통일되고 일관된 안보교육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부대의 경우 대외적으로 알려진 많은 안보견학시설을 보유한 관계로 안보교육이 집중되어 부대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기까지 한다.¹⁷⁾ 따라서 통일된 교육을 시행하고 부대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부 차원에서 학교 안보교육 지원에 대한 조정·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국방안보교육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할 수 있다. 현재도 군은 나라사랑교육이라는 명칭으로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안보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역장교 및 예비군 지휘관들로 나라사랑 교관을 구성하여 국방정신교육원에서 소정의 안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 필요한 교안과 슬라이드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급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방안보교육지원센터를 국방정신전력원 소속으로 하여 교육부(교육청), 학교,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안보교육에 대한 지원소요를 직접 접수하고 이를 예하 각급 부대에 적절히 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또한 안보강사 풀을 구축하여 학교나 단체 등에 가장 적합한 강사를 선별·지원함은 물론, 기존의 연구진을 활용하여 다양한 안보교육 프

17)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육군 00사단의 경우 6월 한달간 공식적인 병영체험 행사가 12회, 지역학교 안보교육 지원 7회, 부대내 안보관광지인 4땅굴, 두타연 등지에 1일 평균 300명(휴일의 경우 1,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인접부대에 비해 상당히 많은 횟수의 안보교육 지원활동이 이루어졌다(육군00사단, 2012).

로그래밍이나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의성 있는 자료를 제작·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안보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다른 단체(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보강사진과 중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교육효과라는 측면에서 현역 교관들은 청소년과 연령층이 가깝고 안보교관으로서 충분한 소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비역이나 민간인 출신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방정신전력원이 국방안보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국방안보교육지원센터의 개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방안보교육지원센터 운용(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속: 국방정신전력원 • 인 원: 행정 및 전산담당, 교재 및 프로그램 연구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보강사 운용: 국방정신전력원 소속 전문강사, 아전부대 양성교관(정훈장교, 지휘관 등) • 임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기관에 대한 안보교육 계획, 지원, 평가 등 운용전반 - 학교 등 대외기관으로부터 안보교육 지원요청 접수 / 최적의 안보강사 및 교육 지원 - 안보교육 지원 부대 선별 및 임무부여 - 안보교육 관련 콘텐츠 제작, 다양한 안보교육 프로그램 개발 - 안보교육에 대한 군내외부 의견수렴 	

V. 결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관리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것이 군의 임무라면, 내부적으로 장병 정신교육을 통해 군의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병들이 입대 전 학생시절부터 올바른 안보관과 국가관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은 학교 교육현장의 진보화와 제6차 교육과정에서 안보교육이 통일교육으로 바뀌면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안보교육의 약화로 인해 청소년들의 안보의식도 저조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의 영향으로 인해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의 안보의식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군이 요구하는 수준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학교현장에서 안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출발하였으며,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안보교육과 정신전력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규명한 후, 학교 안보교육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실제 학교현장에서 안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강원도 양구지역의 중학교의 학교교육계획을 집중 분석하였다. 또한 지난 2011년 3월 25일 국방부와 교육부 및 한국교총의 안보교육 MOU를 체결을 비롯해 군의 학교 안보교육 지원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는데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학교 안보교육의 강화 조치와 통일교육에서 안보교육으로 학교안보교육의 명칭환원,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범 정부차원의 학교안보교육 강화대책 수립 및 관련 법규의 정비와 추가 제정, 셋째, 교육자치제에 따라 교육청 및 개별학교 차원의 안보교육 강화조치, 넷째, 국방부 차원에서 학교안보교육 지원에 대한 조정·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안보관을 견지토록 안보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기틀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학교에서 군과 연계된 안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국방부와 교육부 차원의 정책협의를 넘어 범국가적 차원에서 학교 안보교육 강화에 심혈을 기울임은 물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발전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석완. 2010. 초등학교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원도교육청. 2012. 2013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 강원도 양구교육지원청. 2014. 교육과정의 이해 홈페이지. <http://www.kwyged.go.kr>.
- 강원도 양구교육지원청. 2012. 2013년 D·S·Y중학교 교육계획. 강원도: 강원도 양구교육지원청.
- 국방대학교. 2002. 안보관계 용어집. 서울: 국방대학교.
- 국방부. 1997. 정신전력 지도 지침서. 서울: 국방부.
- 국방부. 2013. 2014년 정훈공보활동지시. 서울: 국방부.
- 국방정신교육원. 1998. 무형전력 향상을 위한 지도활동 방안. 서울: 국방정신교육원.
- 국토통일원. 1993. 초등학교 교과서에 반영된 통일안보교육의 변천과정 분석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 권정은. 2003. 통일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완. 1986. 정신력이 통하는 리더십. 서울: 가을 문화사.
- 김성완 역. 1986. 전투연구. 서울: 국군정신전력학교.
- 김영아. 2005.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교과서에서의 북한 관련 내용 변화.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학욱. 1990. 정신전력의 개발. 서울: 배영사.
- 노찬백. 2005. 호남지역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統一問題 研究, 20(2): 111-136.
- 노컷뉴스. 2011. 서울시 교육청 교사행정업무부담 경감 대책 발표. 2011. 6. 28.

- 박일. 2012. 정신전력과 긍정적 정신건강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승주. 2008. 통일교육에서 갈등해결교육 적용방안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종천. 1987. 국가방위론. 서울: 육군사관학교.
- 서울신문. 2011. 우리의 주적은 45% 일본, 6·25전쟁 발발연도는 58% 몰라. 2011. 6. 25.
- 안전행정부. 2013. 2013년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결과. 서울: 안전행정부.
- 옥인호. 2004. 군 정신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합뉴스. 2013. 대통령 국방정신전력 창설 축하. 2013. 12. 2.
- 연합뉴스. 2013. ‘성인 36%·중고생 53%, 6·25 발발연도 몰라’ 2013년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2013. 6. 23.
- 육군대학. 2005. 군사전략. 대전: 육군대학.
- 육군본부. 2012. 6. 23. 육군, 청소년 호국안보교육 지원, 작년에 비해 2배. 공감코리아(<http://korea.kr>).
- 아미메거진. 2013. 군 복무 패러다임 전환, 군 복무 가치제고 프로세스. 서울: 아미메거진.
- 육군본부. 2013. ‘장병 생각측정 결과 보고서.’ 육군본부 정훈공보실.
- 윤건영. 1992. 남북한 교류 협력시대 통일교육의 방향. 92년 북한 통일연구 논문집(6): 387-483.
- 이병도. 1998. 고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지현 외. 2012. 교육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조규락·김선연 공저. 2007.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학지사.
- 조선일보. 2010. 군 정신무장 강조. 2010. 12. 4.
- 전영기. 1997.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추병완. 1992. 학교통일교육의 개선방향. 새교육 452호. 학교교육신문사.
- 통일부. 2013. 2013 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교육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ncic.re.kr/nation.index.do>.
- 한만길. 2001.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 한만길 외. 1997. 학교통일교육 내용 방안 연구. 수탁연구 CR 97-61.
- 헤럴드경제. 2011. “교과부 - 국방부 - 한국교총, 안보교육 MOU 체결.” 2011. 3. 25.
- SBS. 2014. 뉴스방송 보도. 2014. 3. 19.

고성진: 명지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와 영남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합동군사대학교 예하 국방정신전력원 교학행정처 교관 겸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분야는 국가안보, 정신전력, 정훈교육, 군 교육체계 연구 등이다(cptksj@hanmail.net).

박효선: 중앙대학교에서 HRD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청주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한국군의 평생교육”,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군 복무경험의 평가인정 방안” 등이 있으며, 관심 분야는 군 인적자원개발, 평생교육, 전직지원교육 등이다(phs6166@cju.ac.kr).